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관하여

이 흥 식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교수)

◆ 국문초록

본고는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중주어 구문의 각 성분에 부여할 의미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하였다. 서술절 설정은 서술절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나 표지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우며 또한 서술절 설정의 절차를 제시한다고 해도 첫 번째 명사구를 서술절의 논항으로 만드는 절차 역시 상정해야 한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면 동사의 격들을 두 개씩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하는 쪽을 택하였다.

그러나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본고에서는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택하였다. 소유자역이라는 의미역은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제와 언급이라는 문장의 두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후행하는 요소는 주제를 언급의 대상으로 삼아 정보를 추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의미역 설정에 반영하기 위해 첫 번째 명사구에 대상역이라는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담화의 층위에서의 관계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문장 내의 관계라는 점을 중시하여 첫 번째 명사구에는 소유자역이라는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주제어 : 이중주어, 서술절, 논항, 부가어, 의미역, 대상역, 소유자

1. 머리말

본고는 이중주어 구문의 각 성분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¹⁾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구조는 의미역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나아가 다양하게 제기된 구조 가운데 어떤 구조가 의미역 부여라는 관점에서 더 적절한지 찾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박진호(1994)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 문제를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다룬 적이 있다. 이중주어 구문의 첫째 명사구는 동사로부터 직접 의미역을 할당받지는 못한다.²⁾ 동사의 논항구조에 첫째 명사구의 의미역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서술절설과도 유사하기는 하지만 동사구를 서술절로 분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서술절설과 다르며 서술절설이 의미역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의미역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중주어 구문의 첫째 명사구를 어떻게 처리를 하든 의미역의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된다.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목정수(2004, 2005, 2013, 2014, 2016, 2018)의 논의를 따르게 되면 첫째 명사구는 의미역을 동사로부터 할당받게 된다. 이러한 처리는 동

1)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고 명칭에 따른 이론적 함의가 있을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특별한 이론적 함의 없이 편의상 이중주어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서술어라는 명칭 대신에 동사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서술어는 기능을 고려한 명명일 뿐 아니라 동사와 어미의 결합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동사 어간만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용사와 동사를 모두 묶어서 동사로 부르기로 한다.

2) 목정수(2004, 2005, 2013, 2014, 2016, 2018)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의 논항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미역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어떤 의미역을 부여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동사의 논항으로 간주했으므로 당연히 의미역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로부터 받는 의미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흥빈(2007), 이호승(2018)처럼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로 보는 관점에서는 의미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³⁾ 주제가 동사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이다.⁴⁾

의미역은 논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언어학 논의에서 간주되어 왔다. 논항은 의미역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변형생성문법의 전형적인 명사구 출현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을 여기게 되면 문장에 출현한 명사구는 출현을 허가받지 못하게 된다. 의미역에 대한 언어학적인 논의는 이러한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논항과 부가어를 구별하려는 논의 역시 의미역 논의를 포함하였으며 의미역 논의 역시 논항과 부가어의 구별이라는 작업을 요구하였다.⁵⁾ 논항과 의미역은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가어의 의미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⁶⁾ 논항에 대한 이해를 위한 도구로서 의미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

3) 이선웅(2019), 이선웅·박형진(2019)에서는 주제를 설정해서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였는데 문장성분으로서의 주제를 설정하는 논의에 대한 비판이 이호승(2019)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4) 주제 자체가 동사의 직접적인 논항이 아니라는 뜻이지 동사의 논항이 주제로 선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사의 논항도 주제로 선정될 수 있다. 물론 임흥빈(1997)은 동사의 논항이 아닌 나머지 성분이 주제가 된다고 본다.

5) 논항과 부가어의 구별에 대해서는 유현경(1994), 우형식(1996), 이병규(1996), 김영희(2004), 박철우(2002), 이은섭(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6) 의미역에 관한 논의는 언어학적인 논의와 공학적인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유현경·이선희(1996), 최호철(1996), 장석진(1998), 이정민·남승호·강범모(1998), 최호철 외(1998), 홍종선·고광주(1999), 조일영·김일환(1999), 송향근·황화상(1999), 김원경(2007), 김원경·고창수(2009), 신서인(2006), 한정환(2012), 이홍식(2019, 2020) 등은 언어학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고 김현권·김종명(2001), 박철우·김종명(2005) 등은 언어학적인 고려와 실용적인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공학 쪽의 논의로는 강신재·박정혜(2003), 김완수(2016), 김윤정 외(2014), 임수중(2018) 등을 들 수 있다. 공학 쪽의 의미역 논의는 논항과 부가어를 구별하지 않거나 구별하더라도 모두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부가어의 의미역을 설정한 논의는 신서인(2019), 이선웅 외(2019), 이홍식(2020)이 있다.

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에 대한 기술의 한 방식으로 의미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직접 다 기술하기는 어려우니 문장의 의미를 구성성분의 의미의 결합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에 나타나는 구성 성분이 개별 문장의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추상적인 역할을 의미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의미역은 문장의 의미를 분절해서 추상화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문장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문장의 의미에 대한 일정한 기여를 의미역으로 보는 것이다. 문장이 사건을 표현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사건이 일어난 때, 그 사건에 동원된 도구, 재료 등, 사건의 원인, 목적 등을 의미역 목록 속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매우 많고 주장도 다양하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이중주어 구문이 복문이라는 주장, 이중주어 구문이 단문이라는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학교문법의 서술절설을 받아들여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한다.⁷⁾ 후자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의 논항이라는 주장과 주제라는 주장으로 크게 나뉜다.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구의 논항이라는 주장도 있다. 첫 번째 명사구가 주제라는 논의 외에도 첫 번째 명사구가 제시어라는 주장도 있다(이호승 2019).⁸⁾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이중주어 구문이 복문이라는 주장을 펴는 논의 가운데 의미역에 대해 언급한 논의는 박철우(2014)가 유일한 듯하다. 박철우는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첫 번째 명사구가 후행 서술절의 대상역 논항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그 밖에 안명철(2011)에서는 구동사의 주어인 첫 번째 명사구가 귀속역이라는 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기술했다. 이중주어 구문의

7) 서술절설은 학교문법뿐만 아니라 많은 논의에서 주장되고 있다. 임동훈(1996, 1997), 박철우(2005, 2014), 이정택(2006), 김일규(2016), 김건희(2017, 2018) 등이 서술절설을 옹호하는 논의이다.

8) 최용환(2007, 2008)처럼 층위에 따라 주어가 분리되어 결과적으로 주어가 둘이라는 주장도 있다.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로 분석하거나 제시어로 분석하는 논의에서는 이들이 논항이 아니므로 의미역 설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를 살펴본다. 기존의 논의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으므로 대표적이라고 판단되는 입장들을 개괄하고 이들 입장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가 의미역 논의와 직결되지는 않지만 관련이 되므로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다. 특히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할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논의의 편의상 전체 부분의 이중주어 구문을 대상으로 의미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

2.1. 기존 논의 검토

기존 논의 가운데 이중주어 구문 논의의 중심에는 서술절설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중주어 구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서술절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아마도 서술절설이 학교문법에 받아들여져 계속 교육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서술절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절설은 이중주어 구문의 두 번째 명사구와 동사가 하나의 절을 이루고 이들이 다시 첫 번째 명사구에 대해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학교문법에서 이중주어 구문을 서술절로 기술하였다. 남기심(1986) 등에서 서술절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서술절은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놓여 왔으며 서술절을 옹호

하거나 찬성하는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서술절설은 단위에 대한 분명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학교문법에서 서술어는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단위에 대해서 서술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서술어가 되려면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라는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단위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 [철수는 [눈이 크다]]

학교문법에서는 위 문장에서 ‘눈이 크다’를 서술절로 인정한다.⁹⁾ 그러나 어미를 통사 단위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처리도 가능하다.

(2) [[철수는 [눈이 크]]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미 ‘-다’의 문법적 지위이다. 전체 문장을 평서문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철수는 눈이 크’라는 구성과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눈이 크’를 서술절로 간주해야 한다. ‘눈이 크’라는 단위에 대해 절이라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¹⁰⁾ 이중주어 구문을 임동훈(1996:146)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3) ㄱ. 코끼리는 코가 길다.

ㄴ. [코끼리는 [코가 길-다]-다]

ㄷ. [코끼리는 [코가 길-]-다]

9)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모두 갖추었고 서술어에는 종결어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장으로 분석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주어와 종결어미와 결합한 서술어를 모두 갖춘 구성이 문장이 아니라 절이 되어 다시 주어를 필요로 하는지를 설명해야 서술절설은 정당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10) 이선웅(2015)의 입장에서 보면 어말어미가 없으므로 이 구성은 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임동훈(1996)에서는 이중 주어문의 구조를 (3ㄴ)처럼 파악한다. 기저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절이 표면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구조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어말어미 ‘-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말 어미가 한 문장에 하나밖에 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서는 구조의 변형인지가 문제가 된다. 임동훈(1996)에서 어말어미를 통사적인 단위로 인정했다면 어말어미는 어말어미구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음성형식으로서 어말어미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말어미가 삭제되고 어말어미구도 삭제되었다는 것인지가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¹¹⁾

또한 삭제된 어말어미가 무엇인지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4) ㄱ. 코끼리는 코가 기냐?

ㄴ. [코끼리는 [코가 길다]-냐]

ㄷ. [코끼리는 [코가 기냐]-냐]

기저 문장에서 어떤 어말어미가 오는지가 정해질 필요가 있다. 어말어미라는 성질만 존재하는 어떤 추상적인 어미인지 아니면 표면에 실현될 수 있는 어말어미 가운데 하나인지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어말 어미의 삭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도 문제가 된다. 아마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기저의 어말어미 연쇄가 하나의 어말어미로 표면에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포절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내포절은 어미가 내포절의 기능을 표현하지만 서술절은 어미가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서술절에 포함된 서술어가 서술의 기능을 해서 별도

11) 임동훈(1997:59)에서는 어말어미가 없이도 문장(S)가 구성되는 것처럼 기술하는데 임동훈(1997:62)에서는 ‘집이 마당이 좁다’에서 ‘마당이 좁다’를 서술절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중주어 구문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기가 어렵다.

의 어미가 필요하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교문법의 틀을 따르게 되면 서술어는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철수가 눈이 크다’에서 서술절은 ‘눈이 크다’여야 한다. 그런데 ‘눈이 크다’는 이미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종결어미도 갖추고 있으므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종결어미를 갖추고 있는데 굳이 절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른 내포절은 종결어미를 갖추지 않았다.¹²⁾ 그래서 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눈이 크다’는 종결어미를 갖추었으므로 문장으로 분석해야 한다. 결국 ‘눈이 크다’나 ‘코가 길다’가 왜 문장이 아닌지를 설명해야 이들이 서술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증명되는 것이다.

만약 ‘눈이 크’까지만 서술절이라고 하면 이는 다른 내포절과의 너무 다른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문법의 틀을 벗어나게 되므로 완전히 다른 문법 범주와 표시 방식을 동원해서 이를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변형생성문법의 예전 표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문장은 보문소의 투사가 된다. 그러므로 동사까지만 분석하게 되면 그 구성은 동사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명사절은 어미가 있으므로 어미구가 되거나 교착소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술절을 내포절로 분석할 때 어떤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구조에서 다른 내포절과 서술절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 뭔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른 문제는 생성과 관련된다. 통사론을 어떻게 이해하든 어떤 구성이 문법적인 구성이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동사 중심의 통사론을 하는 이유는 동사의 어휘부 정보에 의해서 동사와 결합하는 구성들의 문법성을 기술하기 때문이다.

(5) 철수가 밥을 먹는다.

12) 물론 인용절은 종결어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인용의 조사 ‘고’가 개입해서 이를 내포절로 기능하도록 하므로 서술절과는 다르다.

위 문장에서 ‘철수가’와 ‘밥을’은 ‘먹다’라는 동사의 어휘부 정보에 의해서 문장의 출현을 허가받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통사론 논의의 기술 방식이다. 다시쓰기 규칙과 같은 통사부의 규칙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동사구의 내부 성분들은 동사의 어휘부 정보에 의해 출현의 적격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런데 서술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서술절의 주어가 어느 층위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인허되는지를 정하기가 어렵다.

(6) 철수는 눈이 크다.

위 문장에서 ‘철수는’이 ‘눈이 크’ 또는 ‘눈이 크다’의 주어가 될 텐데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어휘부 정보에서 올 수는 없다. 물론 안명철(2001)처럼 구동사라고 한다면 구동사는 사전에 등재되고 구동사의 어휘부 정보에 주어 논항의 출현에 대한 정보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술절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정보의 출현을 기술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철우(2005)에서는 일종의 다시쓰기 규칙을 인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다만 다시쓰기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없이 서술절의 설정을 위해서만 다시쓰기 규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다시쓰기 규칙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쓰기 규칙과 동사의 어휘부 정보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어떤 정보는 어휘부 정보의 의해 기술되고 또 어떤 정보는 다시쓰기 규칙에 의해 기술되는지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아래는 박철우(2005:166)에서 제시한 문장의 생성 규칙이다.

(7) 문장 생성 규칙

S --_ NP VP

VP --> (S* NP*) V (V-end*)

NP --> (ADN) (NP*) N (N-end*)

(*: 하나 이상, (): 생략 가능, { }: 선택적)

V-end: 어미
 N-end: 조사
 ADN: 관형사

위의 다시쓰기 규칙이 이중주어 구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동사구가 문장과 명사구를 동반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표시일 것이다. 서술절은 문장이 다시 동사가 되는 구성이라서 달리 표시되어야 할 듯하지만 박철우(2005:167)에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이 이중주어 구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8) [S 토끼가 [_{V-S} Ø(-의) 귀가 [_{V-S} Ø(-의) (길이가) [_V 길]](-다)](-다)

어미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왜 어미가 모두 ‘-다’여야 하는지가 기술되지 않았다. 전체 문장의 어미가 ‘-다’인 것은 표면 문장이 ‘-다’로 끝나므로 이해가 되지만 선행하는 어미 ‘-다’는 왜 다른 어미가 아닌 ‘-다’인지가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이 다시 동사로 변환되는 생성 규칙의 성격에 대해서도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서술절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첫 번째 명사구를 동사의 주어로 보는 논의들이 있다. 최형강(2002)에서는 일부 이중주어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가 전체 문장의 주어이며 두 번째 명사구가 보어라고 한다. 목정수(2013)에서는 아래 문장의 두 번째 명사구가 목적어의 일종이라고 한다.

(9) 철수는 눈이 파랗다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동사구를 이룬다. 이때도 어말어미와의 결합은 문제가 된다. 생성 문법의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아마도 ‘철수는 눈이 파랗’까지가 하나의 구성이 되고 그 구성에 ‘-다’가 결합한

것이 된다.

동사구설은 두 번째 명사구가 주어가 아니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목정수(2013)에서는 목적어라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을/를’과 결합하는 목적어와는 다르다. ‘을/를’이 결합할 수 없다. ‘고 싶다’ 정도의 예문으로 이 둘의 차이를 없애는 것처럼 간주할 수는 없다.¹³⁾ 둘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나야 비로소 동사구 설은 제대로 논증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논의의 발판이지 논의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어라고 보아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철수의 눈은 파랗다’에서 ‘철수의 눈’은 주어인 반면 ‘철수가 눈이 파랗다’에서 ‘눈’은 보어가 된다. 직관적으로 보아서 ‘파랗다’와의 관계가 동일한데 어떤 근거에서 하나는 주어가 되고 하나는 보어가 되는지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주어이므로 두 번째 명사구는 자동적으로 보어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술을 설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⁴⁾

다른 문제로는 두 개의 명사구가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명사구가 나타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10) 철수는 동생이 눈이 파랗다.

13) ‘나는 영화를 보고 싶다’와 ‘나는 영화가 보고 싶다’에서 ‘이/가’와 ‘을/를’은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조용언 ‘싶다’의 출현이 이러한 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가’와 ‘을/를’이 교체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4) 최형강(2014)은 연어 구성의 이중 주격 구성에 대한 논의인데 원래는 ‘주어 서술어’ 구성이 재구조화를 통해 ‘보어 서술어’ 구성이 된다고 기술하였다. 다만 재구조화의 제약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 재구조화가 가능해지지는지 알 수는 없다. 재구조화는 (9)와 같은 문장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주어였던 성분이 보어가 되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인지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문장에서 ‘철수는’을 주어로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그러면 나머지 명사구에 대해 부여할 성분이 마땅치 않다. 아마도 ‘철수는’을 주제로 간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주제’라고 하는 성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목정수(2013)의 논의를 받아들이면 이중 주어를 허용하는 동사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두 개의 논항 구조를 가지게 된다.

(11) ㄱ. 철수의 눈은 파랗다.

 ㄴ. 철수는 눈이 파랗다

위 두 문장을 생성하려면 ‘파랗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면서 다의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 용법도 가진다. 이와 유사한 용법의 모든 동사가 다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가 온당한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파랗다’는 이 동사의 속성을 가지는 대상이 오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두 자리 논항을 요구하는지 좀 더 설득력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지정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12) 철수는 눈이 파란색이다.

이때 ‘이다’는 세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한다.¹⁵⁾ 그런데 목정수(2013)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없다. 이 문장 역시 세 자리 논항이 나타난 것은 박진호(1994)의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이다’가 철수, 눈, 파란색 이 세 논항을 다 요구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15) 정혜권(2016)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이 계사 구문에서 구문 상속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기술되고 있으나 계사 구문도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중주어 구문은 다른 경로로 발달한 것이 아닌가 한다.

(13) 철수는 영희와 친구이다.

이 문장에서 ‘영희와’는 ‘친구’가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문장에서 ‘철수’는 ‘눈’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4) 철수는 동생이 키가 크다

이 문장 역시 ‘철수’는 ‘동생’이 요구하는 것이고 ‘동생’은 ‘키’가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른바 이중주어 문장은 ‘주어 보어 동사’ 구성과 ‘주어 서술절’ 구성 사이의 어딘가에 있는 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을 복합서술어라고 하든 구동사라고 하든 ‘주어 동사’ 구성이 다시 반복되어 ‘주어 주어 동사’ 구성이 된 것이다. 첫 번째 명사구를 제외한 구성을 ‘절’이라고 부르기에 문제가 되고 단순히 동사구라고 부르기에 문제가 된다.

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선웅(2015)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수도 있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을 때 위에서 말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동사의 어간 부분인가 아니면 동사와 어미의 결합체인가. 어미까지 포함해야 절이라고 한다면 이중주어 구문은 절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15) 철수는 눈이 파랗다.

위 구성에서 ‘눈이 파랗’이라는 구성은 절이 될 수 없다. 어말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생성문법적인 방식의 기술을 택하면 ‘눈이 파랗-’은 동사구가 된다. 그리고 이 동사구는 주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동사구는 다시 ‘철수는’과 결합한다. ‘철수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박철우(2014)처럼 주어는 지칭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눈이’는 주어가 될 수 없다.¹⁶⁾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지칭성이

없으면 주어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은 무엇인가? 왜 ‘파랳다’가 의미하는 상태 또는 속성은 ‘눈’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상태나 속성은 직접적으로 ‘철수’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철수의 눈은 파랳다’와 같은 문장처럼 ‘파랳다’의 속성이나 상태는 ‘눈’에 귀속된다. 다만 화자나 청자는 ‘눈’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제시하고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철수의 눈’이라고 바로 표현하거나 ‘눈이 파랳다’는 진술이 ‘철수’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하거나 하게 된다. 후자에서 ‘철수’는 주어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어처럼 보여도 주어가 아닐 수 있다. ‘눈’이 주어처럼 보여도 목적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꾸로 ‘철수’가 주어처럼 보여도 ‘주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이때 ‘철수는’을 부가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철수는’이 부가어인 것은 특정한 구성의 논항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눈’의 논항이라고 해도 ‘눈’의 투사 범주 내에서 논항이 될 수는 없다. 그 바깥에 있으므로 논항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는 있어도 논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박진호(1994)에서도 ‘눈’의 논항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눈이 파랳다’의 논항이라고 기술한 것이다.

2.2. 이중 주어 구문의 구조

임흥빈(1999)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른바 가변중간투사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사의 논항이 모두 충족되는 구성이 최대 구조가 되며 그 전까지는 바의 수만 그냥 늘어나는 구조이다.¹⁷⁾

16) 박철우(2014)의 논의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바로 이중주어 구문에서 두 번째 명사구의 문법적 성격이다.

17) 임흥빈(1999)에서는 어휘부에 제시된 정격 논항만 주어나 목적어로 분석하는 입장이나 본고에서는 격조사가 부착된 정격 논항만 주어나 목적어로 간주하지는 않는 입장을 택한다.

(16) ㄱ. 철수가 눈이 파랗다.

ㄴ. [[철수가 [[눈이] 파랗]VB]VP 다]EP

목정수(2014)처럼 ‘파랗-’이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면 가변중간투사론의 입장에서는 위의 구조가 도출될 것이다. ‘철수는 눈이 파랗다’의 경우에는 ‘철수는’이 정격의 주격 조사구가 아니라서 주제로 간주되고 구조의 바깥에 제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조사구)를 ‘파랗-’의 논항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구조를 제시하지 않는다. 구문에 대한 기술을 담당하는 층위가 있고 그것이 어휘부에 속하든 통사부라는 별도의 층위에 속하든 문장의 구조에 대한 도출을 담당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기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가변중간투사론에서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17) [[철수가 [[눈이] 파랗]VP]VP 다]EP

‘철수가’는 일종의 부가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일단 동사구(VP)의 부가어로 보기로 한다. 부가어로 기술할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출현의 수의성이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면 ‘눈이 파랗다’는 적격한 문장이 되기 어렵다. ‘눈’의 소유자가 필요하거나 ‘눈이 파랗다’는 속성의 담지자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든다. ‘눈’은 개별적인 서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반드시 누군가의 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철수의 눈’이 되든 ‘철수가 눈이 파랗다’나 ‘철수는 눈이 파랗다’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맥락에서 ‘철수’가 상정되는 것이 너무 당연해서 실제 문장에서 ‘철수’를 언급하지 않고 ‘눈이 파랗다’만 언급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어떤 맥락에서 ‘철수’가 누워 있고 화자가 철수를 관찰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눈은 파랗다’ 그리고 ‘팔은 길다’ 그리고 ‘키가 작다’와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문장 내에 ‘철수’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문장은 구조를 어떻게 표

시할 수 있을까?

(18) [[e [[눈이] 파랗]VP]VP 다]EP

위와 같이 공범주가 있는 것으로 기술할 것인가? 맥락의 문제를 통사론에서 기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눈’이 일정한 지시 대상과 관련하여 지칭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반드시 통사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은 또 다른 정당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한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눈이 파랗다’라는 문장이 그 자체로 성립한다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의 지칭성은 통사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어의 지칭성이 맥락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에는 그 맥락이 통사 구조에 반영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9) [[[눈이] 파랗]VP 다]EP

맥락 조건에 의해 지칭성이 확보되면 위 문장은 적격해지는 것이다.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 문장은 부적격한 문장이 된다. 본고의 입장에서 보면 지칭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의 논항으로 제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맥락에 의해 보충될 수도 있으며 두 번째 명사구의 내부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전체 문장의 부가어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철수는 눈이 파랗다’와 같은 문장은 ‘파랗다’라는 동사가 다의어라서 하나의 논항을 취할 때도 있고 두 개의 논항을 취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논항만을 취하며 그 논항의 지칭성이 문제가 될 때 첫 번째 명사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명사구를 요구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고 첫 번째 명사구가 주어로 기능하기 위한 지칭성 확보라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18) 박철우(2014)에서는 문장층위의 주어가 지칭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징

이 점은 이호승(2019)에서 첫 번째 명사구를 잉여 성분으로 보고 이를 제시어와 같은 것으로 분석하는 입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어는 화자의 표현 욕구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성분이지만 후행하는 명사구의 지칭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는 않다. 맥락에 의해 지칭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어가 없더라도 후행 명사구의 지칭성은 별도로 확보될 수 있다. 제시어는 지칭성이라는 요구에 의해 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이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와 제시어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그림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 나무그림에서는 첫 번째 명사구가 부가어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함수자의 논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박진호(1994)처럼 논항의 전수와 합류하는 절차를 상정하여 결과적으로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구의 논항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상정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명사구의 출현은 문장 내의 성분이 어휘부에서 가져오는 정보로는 인허되지 않는다.

박철우(2014)에서는 문장의 주어는 지칭성을 가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지칭성을 가지고 이른바 서술절 내의 주격 성분과 모종의 의미론적인 관련을 가지면 주어로 분석된다고 한다.

(20) 철수는 동생이 집을 나갔다.

위 문장에서 ‘철수는’은 주어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생’은 지칭성이 완벽하지 않다. ‘누구’의 동생인가 하는 점이 그 자체로

이 이중주어 구문에 반영된다고 기술하였다. 지칭성은 주어 판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어가 전형적으로 지칭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지칭성을 가지지 않는 주어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는 드러나지 않는다. ‘동생’의 지칭성은 ‘철수’라는 고유명사에 의해 보완된다. 그렇다면 ‘철수’가 전체 문장의 주어라고 해야 한다. 본고의 입장에서 위 문장에서 ‘철수’가 주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동생’의 지칭성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주어와 관련된 다른 문법 현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동사의 어휘부 정보에 의해 요구되는 논항이 충족되면 일단 주어는 그 안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문장의 해석에 필요한 정보 가운데 지칭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지는데 이중주어 구문은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지칭성이 해당 명사구를 필수적으로 그 위치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명사구는 문장의 구조에서는 부가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철수는 [눈이 파랗다]_s]_s

위 문장에서 ‘철수는’이 동사구의 부가어인지 문말어미구(문장)의 부가어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소영(2019:29-30)에서는 화제어는 문말어미구의 내부에 오는 성분으로 기술하였다.¹⁹⁾ 화제어는 서술어의 논항은 아니라는 것이며 동사구(VP) 외부에 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동사구 내부의 논항이나 동사구의 논항이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고자 한다. ‘철수는’은 부가어로서 후행하는 요소나 구성의 논항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 직관적으로는 서술절의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절차에 대한 기술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부가어로 볼 수밖에 없다.²⁰⁾

19) 박소영(2019:51)에서는 화제어가 TopP의 명시어 위치를 차지한다고 기술하였으나 TopP의 구체적인 구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0) 이선웅(2015:94)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문장 부사어로 부가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홍재성 교수가 어느 학술 대회에서 주제를 부사어(부가어)로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하였다.

3. 이중 주어 구문의 의미역

이중주어 구문을 서술절을 가진 복문으로 분석하든 ‘주어 - 보어 - 서술어’의 단문으로 분석하든 의미역을 부여하는 문제는 남는다. 두 번째 명사구에 ‘대상역’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서술절설은 서술절의 주어가 ‘대상역’을 받고 서술절이 다시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선택해서 ‘대상역’을 부여한다고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구설에서는 의미역 설정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명사구에 ‘대상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첫 번째 명사구에도 동일한 의미역인 ‘대상역’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의미 관계가 두 명사구에 반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명철(2011)에서 ‘귀속역’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 논의는 결국 첫 번째 명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의미역은 전형적으로 논항에 부여되었다. 동사는 함수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함수자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것이 논항이고 그 논항 자리에 특정한 의미역이 상정되었다.²¹⁾ 그런데 최근에는 공학 쪽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의미역이 문장에 나타나는 성분들이 문장의 의미에 기여하는 역할로 확대되어 이해되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논항의 의미역, 부가어의 의미역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컴퓨터에 문장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의 의미를 일종의 성분의 의미로 분해해 기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의미역 논의를 반영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사구가 논항이 아니고 부가어라고 하더라도 의미역 설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 서술절을 상정

21) 구절구조 규칙 대신에 어휘부 정보를 통해 문장 구조를 생성해 내려는 입장에서는 동사의 논항구조를 어휘부에 설정함으로써 문장 내에 나타나는 구성의 출현을 제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이나 이중주어 구문의 동사가 두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주장 모두 논항에 의미역을 상정하는 논의에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 주장 모든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의미역으로 돌리게 되면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분석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명사구의 의미역은 주어가 갖는 의미역에 근접하게 설정하는 것이 기존 논의의 정신과 부합하는 장점이 있게 된다. 서술절설이나 주어설 모두 의미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서술절설의 경우에는 아마도 대상역을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박철우(2014)에서는 서술절의 주어에 대상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동사 논항설의 경우에는 의미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그것은 아마도 두 번째 명사구가 대상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명사구가 대상역을 받게 되면 두 명사구 모두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물론 안명철(2011)처럼 귀속역을 상정할 수 있으나 귀속역 역시 대상역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선웅 외(2019)에서는 동사 논항설을 주장하지는 않고 첫 번째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하면서도 첫 번째 명사구의 의미역을 소유자로 간주하였다. 첫 번째 명사구를 소유자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명사구는 두 번째 명사구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어 명사구에서 초점화된 듯한 구문에도 이러한 처리는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

(22) 철수는 영희가 다리를 잡았다.

위 문장에서 ‘철수’는 목적어 ‘다리’의 소유자 논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어 명사구의 소유자 논항이거나 목적어 명사구의 소유자 논항으로 해석되는 것은 의미 해석의 측면에서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처리

가 된다. 서술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서술절이 어떻게 의미역을 배당하며 또 어떤 의미역을 배당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박진호(1994)의 처리에서는 이 경우에 논항의 전수와 합류라는 장치를 통해 소유자가 첫 번째 명사구에 배당되게 되는데 이는 서술절설과 비슷한 입장이면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의미역은 결국 두 번째 명사구로부터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명철(2011)에서는 귀속역을 상정했는데 이는 대상역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한다. 대상역이라는 것이 상태 서술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면 해당 상태나 속성이 귀속되는 대상이 귀속역이라고 이해한다면 어떤 측면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대상역과 귀속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서술의 대상은 통사적인 측면에 치우친 느낌이 드는 의미역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동작이 미치는 대상과 서술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대상역이라는 공통된 명칭을 사용하는데 박진호(1994:87-88)에 따라 참여자 사이의 역학 관계를 고려해서 명명한다면 변화나 상태 기술의 대상인 대상역과 영향을 미치는 동작의 대상인 피동작주역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태나 속성이 속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귀속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속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귀속대상역이어야 할 것이다. 속성이 귀속되는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면 귀속이라는 작용 그 자체는 개체에 대한 지시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한다.

대상역 또는 귀속역은 후행 동사나 동사구와 첫 번째 명사구의 관계가 전형적인 주어 서술어 관계라는 것을 전제한다. 통사론의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입장은 서술절설이 될 것이고 어휘부의 어휘 내향 정보의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입장은 동사의 논항 설이 될 것이다. 소유자 논항을 주장하는 입장은 그러한 통사부나 어휘부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문장에 주어진 단어들의 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을 찾는 것이다. 두 번째 명사구와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명사구와의 관계를 보면 소유자와 피소유자의 관계이다. 이를 통사부에서 반영하기 위한 생성적 방법은 박진호(1994)가 된다. 그렇지 않고 표면적인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면 이선웅 외(2019)의 입장이 된다.

이중 주어 구문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서 의미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정수(2004:46-49)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하는 ‘명사 + 용언’ 구성을 영어 대역 표현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이중주어 구문의 두 번째 명사구가 목적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리를 확장해서 이중주어 구문을 타동문으로 바꾸어서 의미역을 기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23) ㄱ. 철수는 큰 눈을 가졌다.
 ㄴ. 철수는 눈이 크다.

만약에 위 두 문장이 동의이고 이러한 동의 관계를 의미역의 논의에 포함시킨다면 ‘철수는’은 두 문장 모두에서 소유자역을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지다’의 세종사전 기술을 보면 ‘가지다’는 ‘LOC’와 ‘THM’의 의미역을 가지거나 ‘EXP’와 ‘THM’의 의미역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역은 ‘철수의 책’과 같은 명사구의 의미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술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장 내의 의미역을 기술할 때 소유자역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는 않은 듯하다.

박진호(1994:77-9)에서는 논항의 전수를 통해 이중주어 구문을 기술하면서 두 번째 명사구의 논항이 동사에 전수되고 이 논항이 첫 번째 명사구에 부여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 (24) 철수의 손이 크다.

결국 위 문장에서 ‘철수’는 ‘손’의 소유자역을 배당받게 된다. ‘손이 크다’는 ‘손’의 논항 정보를 물려받아서 일종의 복합 술어가 되어 한 자리 함수자가 되는데 가지고 있는 논항의 의미역은 소유자역인 것이다.

이를 달리 이해하면 ‘철수’는 ‘손이 크다’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안명철(2011)에서 제시한 귀속역과도 비슷하다. ‘손이 크다’라고 하는 속성을 ‘철수’가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소유자역이라는 의미역의 설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사구와 첫 번째 명사구의 관계는 상태동사와 주어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술절을 설정하는 논의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의미역 논의에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명사구와 후행 동사구의 관계는 대상역과 술어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철우(2014:168-9)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27) 코끼리가 코가 길다.

(27)과 같은 이중 주어문에서 동사는 ‘길다’이고 ‘길다’는 하나의 논항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의미 선택 제약을 고려한다면 ‘코’가 주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코’에는 대상역이 부여될 것이다. 그런데 ‘코’는 지칭성을 가진 명사구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보통명사이지만 종류 지칭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지칭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위 문장은 아래의 구조를 가진다고 본다.

(27') 코끼리가 [[\emptyset -(의) 코]가] 길다]

즉 ‘길다’의 논항 자리를 ‘코’가 채웠으나, ‘코’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한 자리 논항이 채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코가 길다’라는 한 자리가 빈 서술어가 형성이 됐다. 그런데 그 빈 자리가 ‘코’에 의해서 요구될 때는 그것이 명사이기 때문에 관형격 ‘-의’ 논항이 요구되었으나 ‘코가 길다’에서는 그 구성이 동사구가 되므로 새로 주격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의미역이 어떻게 할당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할당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코’가 요구하는 소유주와 공지칭 관계에 있으므로 코와 관련하여 소유주의 의미역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전체 문장에서는 이러한 구문이 자주 사용됨에 따라 해석적인 측면에서 주어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미역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좁혀져 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이미 대상역으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²²⁾

박철우(2014)의 논의는 서술절을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구조를 상정한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명사구가 부가어로 분석됨에도 의미역을 부여하기로 한다.

가능한 의미역은 세 가지 정도일 것이다. 소유자역, 대상역은 기존에 제시된 의미역이다. 첫 번째 명사구가 주제의 특성을 갖는다면 주제가 가지는 의미론적 성격을 의미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는 후행 언급의 조건, 범위 한정 등의 의미 특성을 갖는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의미역을 정한다면 조건이나 범위가 어떨까 한다. 그런데 조건은 이미 사태와 사태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설정하기가 어렵다. 임수중(2018)에서 범위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28) 가. 그 약기는 4개의 현을 가진다.
 나. 출산 소식을 들은 그는 매우 기뻐했다.
 다. 반음씩 올리고

22) 이러한 생각은 구문 문법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해권(2016)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이 서술격조사 구문에서 상속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해도 이미 이중주어 구문이 하나의 구문으로 성립되고 그 구문의 논리에 따라 주어 서술어 관계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는 주어가 되고 나머지 구성은 서술어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들 외에 실제로 태깅된 예를 분석한 이선웅 외(2019)에 따르면 ‘가장, 극히, 대부분, 많이, 매우, 모두, 썩, 아주, 완전히, 잔뜩, 크게’ 등과 같은 부사나 수치 표현 등에 ‘범위’라는 의미역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주제의 의미역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임수종 (2018)을 받아들여서 의미역 기술 모형을 연구한 이선웅 외(2019)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부가어로 보고 소유자역(PSR)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소유자역은 명사구와 동사의 의미론적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동사와 나머지 성분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를 의미역이라고 한다면 소유자역은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이지 첫 번째 명사구와 동사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는 아니다.

의미역은 서술어와 논항의 의미론적인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논항의 의미역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논항과 서술어의 의미론적 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은 동반자역이다. 동반자는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의미역, 즉 행위주나 대상을 보조하여 그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체에 부여되는 의미역이다(박철우 · 김종명 2005:553).

- (29) ㄱ. 철수가 영희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ㄴ. 내가 철수와 싸웠다.
 ㄷ. 그 학교는 외교학과를 정치학과와 통합했다.
- (30) 철수와 영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반자의 판별은 매우 단순하다. (29)에서 보는 것처럼 조사 {-과}와 결합되는 명사구가 동반자의 의미역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28)의 경우처럼, 하나의 명사구 속에 {-과}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 하나의 명사구로서 하나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따로 의미역을 부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30)에서 ‘철수와 영희’는 하나의 명사구로서 행위주의 의미역이 부여된다.

이러한 의미역 할당은 적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있지만 과연 의미역으로서 충분히 구별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있다. 단지 표지의 차이로 행위주 또는 대상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31)과 같이 행위주와 대상이 모두 나타나는 구성에서 동반자가 때로는 행위주를 보조하고 때로는 대상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경우를 충분히 변별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31) ㄱ. 철수는 영수와 필통을 맞바꾸었다.

행위주 동반자 대상

ㄴ. 철수는 필통을 공책과 맞바꾸었다.

행위주 대상 동반자

이선웅 외(2019)에서는 동작주의 동반자와 대상의 동반자를 구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COM0’은 주어와 연관된 동반자 논항에 부여하고 ‘COM1’은 목적어에 연관된 동반자 논항에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가어의 경우에도 주어와 연관된 동반자 부가어에는 ‘MCOM0’을 부여하고 목적어와 연관된 동반자 부가어에는 ‘MCOM1’을 부여한다.

문제는 동반자가 주어나 목적어와의 관련에 의한 명명이라는 점이다. ‘맞바꾸다’에 대해서 ‘영수’나 ‘공책’은 대상이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들은 주어나 목적어와 동등한 의미론적인 역할을 술어가 가리키는 행위에 대해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을 박철우·김종명(2005:554)에서 문제삼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표지의 차이가 의미역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들 논항에 대해서는 주어나 목적어에 부여되는 의미역과는 구별되는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반자라는 의미역이 주어나 목적어와 의미론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서술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의미역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문장 내의 다양한 성분들과의 의미론적 관계를 의미역 설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이선웅 외(2019)에서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

사구에 소유자의 의미역을 부여했을 것이다. 소유자는 서술어와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의미역이다. 오직 두 번째 명사구와의 관련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 사이의 의미론적 관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소유자역은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가 소유의 관계를 반영하는 의미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가 후행하는 언급의 범위를 정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위’라는 의미역이 적절할 수 있겠지만 이미 ‘범위’라는 의미역을 다른 의미관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제가 후행하는 언급의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 용어로 대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언급의 대상, 즉 대상역이다. 대상역은 논항의 의미역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미역 명칭이 겹치는 것이다.

이선웅 외(2019)에서도 논항의 의미역과 부가어의 의미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다. 주어와 연관된 동반주역(COM0), 목적어와 연관된 동반주역(COM1), 처소(LOC), 도구(INS)가 부가어의 의미역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은 동반자0(MCOM0), 동반자1(MCOM1), 위치(MLOC), 도구(MINS)와 같이 표시되었다.

부가어로서의 대상을 상정한다면 이를 대상(MTHM)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주제와 언급의 관계는 단순히 통사론적인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계는 주제로 선정되는 모든 성분에 부여될 수 있다.

(32) 밥은 철수가 먹었다.

위 예문에서 ‘밥’은 ‘철수가 먹었다’라는 언급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밥’의 의미역은 동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대상역이고 언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대상역이 된다.²³⁾ 그러므로 동사의 논항이 주제화된 경우에는 의미역이 겹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철수는 눈이 파랗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철수’는 ‘눈’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주’이지만 언급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대상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의 측면에서 의미역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일단은 문장 내의 관계를 중시하기로 한다. 아마도 문장의 분석이 담화에서의 역할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를 의미역 논의에서도 반영하게 되겠지만 아직 의미역을 문장 내의 의미론적인 관계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문장 내의 관계만 의미역 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에는 ‘소유자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중주어 구문은 단문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복문으로 분석하기도 해왔다. 서술절을 설정하는 논의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이 복문이라고 분석했으나 서술절을 성립하게 하는 절차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서술절설은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와 후행하는 구성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직관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는 논의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가 모두 두 개의 격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명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는 다른 입장은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나 제시어로 분석했으며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명사구의

23) 임흥빈(1999)와 같이 격조사가 부착된 정격 논항만을 주어나 목적어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철수는’은 목적어로 해석되지 않고 대상역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고에서는 격조사가 부착된 정격 논항만이 주어나 목적어로 분석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의미역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논항에 의미역이 부여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장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어에 대해서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따르면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부가어로 분석되더라도 이들 명사구에 어떤 의미역을 부여하는지는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였다. 서술절 설정은 서술절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나 표지를 제시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우며 또한 서술절을 설정한다고 해도 첫 번째 명사구를 서술절의 논항으로 만드는 절차 역시 상정해야 한다. 이중주어 구문을 단문으로 분석하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사의 격틀을 두 개씩 설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부가어로 분석하는 쪽을 택하였다.

그러나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본고에서는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소유자역이라는 의미역은 이중주어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제와 언급이라는 문장의 두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반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주제가 정해지면 후행하는 요소는 주제를 언급의 대상으로 삼아 정보를 추가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의미역 설정에 반영하려면 첫 번째 명사구에 대상역이라는 의미역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담화의 층위에서의 관계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의미역이 문장 내의 의미론적 관계라는 점을 중시하여 첫 번째 명사구에는 소유자역이라는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²⁴⁾

24) 담화와 관련된 기능을 의미역에 포함할 것인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논항뿐 아니라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하는 입장을 더 발전시킨다면 문장에 기여하는 의미론적인 특성을 담화 기능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경우에는 주제에 대상역이라는 의미역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 경우에 '초점'에도 의미역을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재·박정혜, 「대규모 말뭉치와 전산 언어 사전을 이용한 의미역 결정 규칙의 구축」, 『정보처리학회논문지 B』 10:2, 2003.
- 김건희, 「서술절에 대한 재고찰 - 내포절 체계 내의 다른 절과의 변별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43, 2017.
- 김건희, 「주격중출 구문에 대한 일고찰」, 『우리말글』 76, 2018.
- 김영희, 「논항의 판별 기준」, 『한글』 266, 2004.
- 김완수, 「격틀 사전과 하위 범주 정보를 이용한 한국어 의미역 결정」,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김원경, 「의미격의 체계와 연산 절차」, 『한국어 의미학』 24, 2007.
- 김원경·고창수, 「격조사‘로’의 문법적 특성과 의미기능」, 『한국어학』 45, 2009.
- 김윤정·김완수·옥철영, 「전산언어학에서의 한국어 필수논항의 의미역 상정과 재고」, 『언어와 정보』 18:2, 2014.
- 김일규, 「한국어에 서술절이 존재하는가?」, 『언어와 정보』 20-3, 2016.
- 김현권·김중명, 「세종 용언 전자사전의 의미역 기술체계 및 목록」, 『2001년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논문집』, 2001.
- 남기심, 「서술절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1986.
- 목정수, 「기술동사와 주관동사 앞의 ‘가형 성분’의 통사적 기능: 단일주어설 정립을 위하여」, 『어문연구』 32-4, 2004.
- _____,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2005.
- _____,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재」, 『국어학』 67, 2013.
- _____, 「한국어 서술절 비판 -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 『현대문법연구』 76, 2014.
- _____,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연구』 44-3, 2016.
- _____,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조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 『국어학』 87, 2018.
- 박소영, 「한국어 독립성분과 화용 정보의 통사구조 표상」, 『국어학』 89, 2019.

- 박진호,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1994.
- 박철우,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34, 2002.
- _____, 「서술절의 성립 요건 - 이중 주어문을 중심으로 -」, 『안양대학교 논문집』 22, 2005.
- _____, 「한국어에는 주어라 없다」, 『현대 문법연구』 76, 2014.
- 박철우 · 김종명, 「한국어 용어 사전 기술을 위한 의미역 설정의 기본 문제들」, 『어학연구』 41-3, 2005.
- 송향근 · 황화상, 「‘명사구(NP)+와’ 논항의 의미역」, 『어문논집』 39, 1999.
- 신서인,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한국어 의미역 말뭉치 구축을 위한 의미역 표지 연구」, 『한국어 의미학』 66, 2019.
- 안명철, 「이중주어 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38, 2001.
- _____, 「주격 중출 구문과 귀속역」, 『어문연구』 39-4, 2011.
- 우형식, 「국어에서의 보충어 범위」, 『배달말』, 21, 1996.
- 유현경, 「논항과 부가어」, 『우리 말글 연구』 I, 1994.
- 유현경 · 이선희, 「격조사 교체와 의미역」, 남기심 편, 『국어 문법의 탐구 Ⅲ』, 태학사, 1996.
- 이병규, 「문장 구성 성분의 향가 의존성 검토」, 남기심 편, 『국어 문법의 탐구 Ⅲ』, 태학사, 1996.
- 이선웅,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2015.
- _____, 「한국어 보어의 개념과 범위」, 『형태론』 21-2, 2019.
- 이선웅 외 8인, 『의미역 기술 모형 연구 및 시범 구축』, 국립국어원, 2019.
- 이선웅 · 박형진, 「문장성분으로서의 주제어」, 『언어』 44-3, 2019.
- 이은섭,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 『어문학』 114, 2011.
- 이정민 · 남승호 · 강범모, 「한국어 술어의 어휘의미에 대한 생성적 연구방법」, 『한국 인지과학회 논문지』 9-3, 1998.
- 이정택, 「이른바 이중주어문에 관하여 - 서술절 설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 로 -], 『청람어문교육』 34, 2006.
- 이호승, 「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의 주제어와 주어성 검증기제」, 『언어와 정보 사회』 35, 2018.
- _____, 「문장의 잉여 성분과 제시어」, 『언어와 정보 사회』 38, 2019.
- 이홍식, 「부가어의 의미역에 대하여」, 『한국어와문화』 27, 2020.
- _____, 「의미역의 분류에 대하여」, 『한국어와문화』 26, 2019.
- 임동훈,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1997.
- _____, 「현대 국어 경어법 어미 ‘-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임수중, 「한국어 의존의미역 태깅가이드라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
- 임흥빈, 「가변 중간 투사론 : 표면구조 통사론을 위한 제언」, 『21세기 국어학의 과제(솔미 정광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월인, 1999.
- _____,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 장석진, 『자연언어처리의 기초연구』, 한국과학재단 연구 결과 보고서, 1989.
- 정해권, 「한국어 주격중출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국어학』 78, 2016.
- 조일영·김일환(1999), 「‘NP-로’의 의미역」, 『청람어문학』 21, 1999.
- 최용환, 「국어의 주어 중출 가능성」, 『우리말글』 43, 2008.
- _____, 「주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언어과학연구』 43, 2007.
- 최형강, 「조사 ‘이/가’의 중출과 논항 설절 - ‘맞다’ 연어 구성을 중심으로 -」, 『언어와 정보 사회』 22, 2014.
- _____, 「주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7, 2002.
- 최호철, 「국어의 의미격 설정에 대하여」, 『한글』 232, 1996.
- 최호철·홍종선·조일영·송향근·고창수(1998), 「기계 번역을 위한 한국어 논항 체계 연구」, 『한국어 의미학』 3, 1998.
- 한정환, 「의미격 조사 ‘가’, ‘를」, 『한국어학』 54, 2012.
- 홍종선·고광주(1999), 「‘-을’ 논항의 의미역 체계 연구」, 『한글』 243, 1999.

❖ ABSTRACT

On the Semantic Roles of Double Subject Constructions

Yi, Hongshi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this paper, double-subject constructions were analyzed as simple sentences. It is difficult to support the predicate clause theory because it has a problem with the generative process of a predicate clause.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suggest a process that assigns a semantic role to the first noun phrases in double-subject constructions. Therefore, analyzing double-subject constructions as simple sentences can overcome such difficulties. To overcome the burden of setting two case frames to the verbs in double-subject constructions, we chose to analyze the first noun phrase of a double-subject construction as an adjunct.

However, the problem of assigning a semantic role to the adjunct words remains. In this paper, the possessor role was given to the first NPs of a double-subject construction. The possessor role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noun phrase and the second noun phrase in the double-subject construction. It is judg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refl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mponents of the so-called topic and comment. When the topic is decided, the following elements add information by making the topic the object of the comment. To reflect this point in a semantic role setting, the theme role was given to the first noun phrase. However, the semantic roles were decided according to the semantic relationship within the sentence hierarchy. The topic-comment

relationship was decided according to the discourse hierarchy. Therefore, the theme role cannot be assigned to the topic component. We suggest that the possessor role should be assigned to the topic component.

Key Words : double subject, predicate clause, argument, adjunct, semantic role, theme, possessor

■ 논문접수일 : 2020. 05. 20

■ 심사완료일 : 2020. 06. 09

■ 게재확정일 : 2020. 06. 10